

## 제29회 강원도 한우 경진대회를 보고

이 종 현



한우개발부장

### 1. 머리말

전국한우경진대회를 열지 못한지가 벌써 5년째이다.

1996년 제16회 대회를 끝으로 전국적인 한우축제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유독히 강원도 한우경진대회 만큼은 IMF, 소값폭락, 광우병, 구제역과 무관하게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강원도가 비록 한우사육두수는 다른 시·도에 뒤떨어지지만 한우를 사랑하고 한우에 가장 관심이 높은 도라는 것을 한눈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나 이번에 경진대회를 개최한 양구군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웅진군을 제외하고 가장 작은 시군이며 읍면은 모두 5개읍면 밖에는 없는 조그마한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역대의 그 어느대회보다도 훌륭하게 행사를 진행했다는 이야기를 한다.

강원도 양구는 산골읍면답게 찾아가는 도로를 보더라도 알 수가 있다. 춘천 시내에서 고개를 넘어 소양호를 따라 구비구비 난 길이 얼마나 정겨운지 모른다. 우측으로는 소양호의 쪽빛물결이 반짝이고 있으며 왼쪽으로는 깎아지른 절벽에 혀를 내두를 정도이다. 길가의 코스모스는 오는 손님을 맞으며 살랑거리고 있으며 구름한점없이 높고 맑은 가을하늘이 외지에서 오는 사람을 정겹

게 맞이하고 있다. 서울서부터 3시간여는 달려가야 겨우 손바닥만한 읍내가 나오고 시골에 애드벌룬이 있는 것으로 보아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더라도 그곳이 <제29회 강원도 한우경진대회>를 개최하는 곳이라는 것쯤은 훤히 알 수 있었다.

## 2. 출품우 현황

품평회에 소를 출품하는 농가에서는 한달여전부터 정성들여 씻고 빗질하고 잘다듬어서 출품하며 코뚜레도 정비하고 빨이나 발굽도 손질하며 심지어는 빨에다가 콜드크림을 바르는 경우도 있다.

이번에 출품하는 소들 모두 한우사육농가의 정성스런 손길이 눈에 띄인다. 그어느 해인가? 지방 한우경진대회 심사위원으로 갔을 때인데 품평회에 출품하는 소 엉덩이에 쇠뿔이 감옷처럼 붙어 있어서 심사위원들을 놀라게 한 적도 있다. 요즈음이야 소 값도 비싸고 소도 귀해서 주인에게도 대접받는 시대가 아닌가? 그러나 아무리 소가 이쁘다고해서 너무 과다하게 비육시킬 필요까지는 없는데 많은 출품우들은 너무 많이 비육되어 있어 매우 안타까웠다. 좀 더 심하게 말한다면 출품우들이 비육을 하다가 나온 소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다.

### 가. 후보종모우

전국한우경진대회에서는 1990년대회이후 종모우 부문의 출품우를 제외 시켰다. 잘 알고 있다시피 정액 생산용 종모우의 선발은 당대검정과 후대검정을 거쳐 선발하기 때문에 경진대회의 종모우 부문은 그 용도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대회에서도 종모우 출품은 없고 후보종모우만

출품했다. 후보종모우도 혈통등록우 이상을 출품토록 했는데 이번에 챔피언으로 선발되는 소는 강원도 축산기술연구센터에서 시가의 130%를 주고 매입하여 강원도형 종모우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전과 같이 본격적인 정액생산용으로 사육한 소가 아니기 때문에 승가를 하지 못하는 출품우가 많았으며 설령 승가를 했어도 정액상태가 좋지 못한 개체가 많이 출현되어 출품자와 해당 시·군 담당자들의 애를 태우는 풍경이 발생하였다.

[후보종모우 입상현황]

시상구분	성명	주소
챔피언	진점순	인제군 남면 신월리
최우수상	윤상준	평창군 미탄면 창1리
우수상	오재환	홍천군 남면 화전리
우수상	윤예상	화천군 상서면 파포1리

후보종모우 챔피언으로 선발된 소는 체상선이 평평하며 후구도 좋았으며 특히 몸전체의 균형의 짜임새가 있었고 출품우중에서는 비육되지 않아서 종모우로서의 자격을 갖춘 훌륭한 소였다.

[챔피언의 능률한 모습]



출품번호 116번을 달고 출품한 인제군의 진점순 씨는 지난번 대회에서도 입상하는 경력이 있어 한우사육에 대해서는 남다른 기술이 있는 것으로 양축농가들 사이에서 평가받고 있었다. 우리협회에서도 시상식때 <한우이상형>을 증명하여 입상자를 기쁘게 하였다.

[협회에서 기증한 한우이상형을 받고 있는 모습]



#### 나. 암소부모

암소부문에서는 큰암소, 암소육성우, 암송아지의 3부문으로 나누어 출품했다. 아무래도 큰 암소

부문에서는 송아지를 1~2산 출하한 소이기 때문에 (36개월령) 이미 성장을 다 끝낸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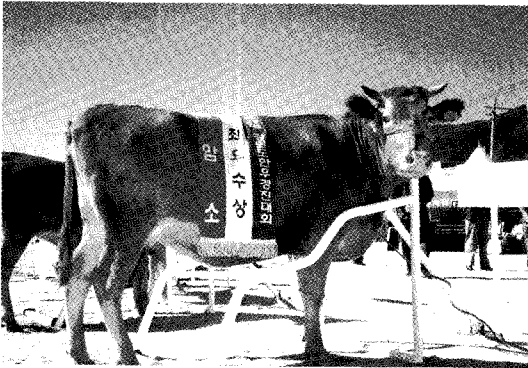
앞에서 지적한 과비부문은 큰 암소 출품축이 가장 심했다. 출품된 15두중에서 불과 몇두를 제외하고 많은 소들은 번식으로는 적당하지 못한 과비형 체형이 많이 있었으며 아직 3산차에도 들어가지 않은 소들의 등이 굽거나 발굽의 형태가 좋지 않은 소가 많았다. 어느 출품우는 송아지와 함께 출품이 되었는데 송아지가 아주 형편없이 말라 있었다. 그래서 원인이 무엇인지 소를 꼼꼼히 살펴보니 유두4쪽지중에 뒤에 두쪽지만 젖이 나오고 앞의 두쪽지는 맹유(젖꼭지막힘)가 되어 있어서 송아지가 젖을 제대로 빨지 못하는 것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소부문에 있어서 유기(유방, 유두, 유정맥 등) 발달상황은 중요한 심사항목으로 되어 있으니 향후 출품을 희망하는 농가는 이런 부모를 염두에 두고 출품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어느 출품우는 아직도 이모색을 출품해서 실격이 되었는데 체형상으로는 나무랄데가 없으나 이러한 백반은 심사전에 실격이 된다는 사실도 명심할 필요가 있

[암소부문 입선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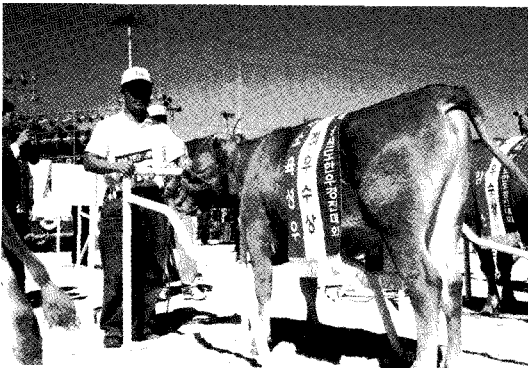
부문별	시상구분	성명	주소
큰 암소	최우수상	김광래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842-9
	우수상	최경돈	동해시 망상동 6통 4번
	우수상	원영실	홍천군 동면 좌운1리
암소육성우	최우수상	연내언	횡성군 청일면 갑천2리
	우수상	전광수	인제군 남면 신월리
	우수상	홍순예	강릉시 연곡면 행정리 137
암 송아지	최우수상	김기환	양구군 양구읍 하리
	우수상	허남석	홍천군 서석면 청량리
	우수상	장백호	춘천시 신북읍 유포2리

다. 암소 육성우 부문에 있어서도 연령에 비해서 과비된 소가 많이 나왔으며 암송아지부문에서는 어렸을 때 조사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여 갈비의 개장이 약했고 배가 풍만하지 못한 개체가 많이 출품되었다. 송아지 때 농후사료(인공유등)를 많이 급여하면 우선 겉보기는 좋을지 모르겠으나 뼈대와 내장의 발달이 약해지기 때문에 향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대회에 출품하던 하지 않던간에 어렸을 때에는 내장과 골격의 발달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한우 사육의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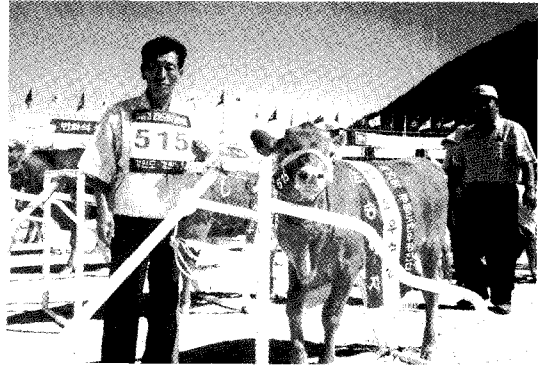
[큰암소 최우수상]



[암소 육성우 최우수상]



[암송아지 최우수상]



### 3. 부대행사

한우 품평회 이외에도 각 시·군별 한우 고급육을 전시하며 지역의 특산물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한 것이 이채로웠다. 이외에도 장기자랑, 씨름대회, 사료포 오래들고 서있기 등 한우경진대회 뿐 아니라 강원도 한우사육농가와 관련단체, 기관등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한 것이 특색이었다. 1년동안 소를 키우거나 기술지도를 하거나 행정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날 함께 어우러져 축제의 마당을 마련한 것이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대회를 계기로 하여 한우사육자와 관련된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만남의 장은 아주 의미 있는 행사라고 확신한다. 이밖에도 흑염소 싸움 대회를 개최하여 참여자의 흥미도 끌고 연예인을 초청하여 하루를 즐겁게 지내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 4. 맺음말

이번 대회 심사위원을 맡아서 심사를 하는 동안 한시도 빼놓지 않고 우리의 선발과정을 주시하는 양축농가가 몇 명 있었다. 그들은 심사위원들의 행동 하나 하나에 관심을 기울이며 무언가 하나라도 배우려는 눈빛을 읽을 수 있었다. 그래서 심사에만 그치지 않고 상위입상우와 탈락우등을 비교하여 설명을 해가면서 심사를 했다. 심지어 어떤 양축가는 자기 소와 다른 소에 대해서 어디가 좋고 나쁜지를 자세하게 설명해달라고 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어 설명도 해주었다. 심사위원이라고 모든 것을 다 잘 알 수는 없다. 사육배경이나 환경등에 대해서는 양축가가 더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출품당시의 소를 보고 평가하며 바람직한 한우의 모습을 설명하고 그 이후는 그들이 열심히 소를 키우는 것이다.

[지역 브랜드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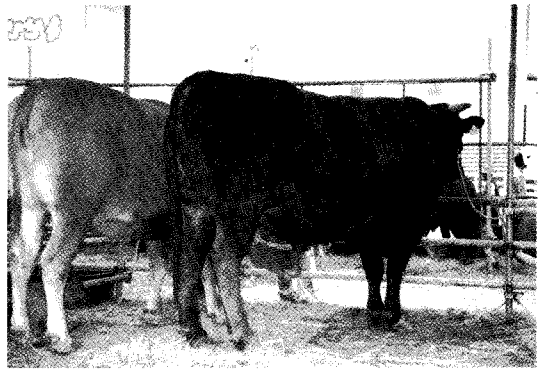


시상식을 끝내고 강원대 김종복교수(심사위원장)께서 우리를 춘천 신북면으로 안내했다. 강원도에 와서 <춘천 막국수>나 <명동 닭갈비>를 안먹고 가면 섭섭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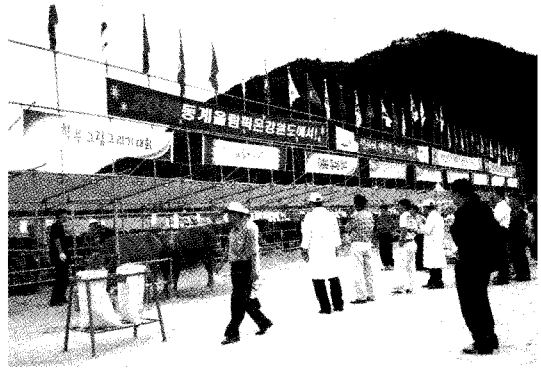
맛있게 막국수를 먹고나니 하시는 말씀 “다른 대

회때는 판정시비가 있어서 시끄러웠는데 이번 대회에는 그런 일이 없어서 심사위원장으로서 매우 기분이 좋다고 ...” 초가을의 춘천은 그리운 나의 시골집 같아서 언제나 기분이 좋다.

[최소 잔소출품]



[출품우 전경]



[체척 측정장면]

